

(7) 아브람의 첫 아들 이스마엘(16:1-16)

중요내용

1.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을 얻기 위한 공모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에덴의 죄를 반복함을 암시.
2. 이스마엘의 후손이 사라가 낳을 아들(이삭)의 계보에 위협이 됨.
3.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와 이삭의 경쟁자이지만, 이들도 아브라함과의 관계로 인해 복을 받음.
4. 하갈과 이스마엘은 두 차례 사막에 거하지만 사라와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함.
5. 하갈과 모세는 사건의 패턴이 같음. 압제, 사막으로 도망, 하나님의 나타나심, 복귀 및 추방 시 구원.
- 사라의 후손을 애굽인이 노예로 만든 것은 하갈의 보복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역설.
7. 바울은 하갈을 옛 언약으로 시내산과 지상의 예루살렘과 동일시, 사라는 새 언약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대표.
- 육의 언약에 속한 자들은 이스마엘처럼 실제로 할례를 받았지만 약속 바깥에서 율법에 속박된 채로 남았음.

1) 하갈의 도피(16:1-6)

- 1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 2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 3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 5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 6 아브람이 사רה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16:1/ '아브람의 아내 사라.. 여종... 하갈':

- * 사라는 이 기사에서 행위의 선동자. 후반부로 가면 하갈에게 관심이 전환.
- * 사라와 하갈 모두 집안에서 자신들의 지위 때문에 심란함.
- * '아내(잇사)', '여종(셉프하)' - 두 여인의 지위를 대조. 셉프하는 여주인의 개인적인 종, 즉 사적인 소유.
- * 두 여인의 주도권 다툼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 - 요셉은 이스마엘 종족에 의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감.

- 16:2-4/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첫 번째 불평: 불임의 원인이 주님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은 데 있다고 여김.

-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는 아내가 불임인 경우 첩을 얻거나 대리모를 통해 출산.
-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순종한 것과 같은 용어(3:17). 사라는 또 다른 하와로 묘사함.
- '십 년후': 아브람과 사라의 인내가 끝났음을 암시. 그러나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15년을 더 기다려야 함.
- '첩': 본처의 종이지만 노예 보다는 높은 지위.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며 가족의 안정에 위협.
- '멸시(칼랄)': 12:3의 '저주(칼렐)'와 맥을 같이함으로써 하갈의 아브람 가족에 반하는 자들의 편에 속함.

- 16:5-6a/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라의 두 번째 불평으로 아브람에게 자신의 모욕의 원인을 돌리며 터무니 없이 비난.

-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사라는 말한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에 대한 응수.
- '그의 여주인을 (자기 눈 앞에서) 멸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와에 대한 암시.

- 16:6b/ '학대하였더니': 사라의 선택이 하와의 선택보다 낫지 않음.

- '도망하였더라': 한 일가 씨족의 보호에 자신의 생존을 건 하갈.

2) 아들의 약속(16:7-14)

- 7 여호와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 8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 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 16:7/ '술': * 남서의 가나안과 북동의 애굽 경계 사이에 위치한 지역.
 - *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통과하여 여행하였으며 이스마엘과 아말렉 사람들은 간혹 술에 거주.
 - * 하갈이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에 대한 가능성.
- '여호와와 사자': * 구약에서 처음 등장, 모두 48회 사용.
 - * 여호와와 사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모호함. 때로는 동일시되고 때로는 구별됨.
 - 16장에서 천사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갈과 화자가 천사를 하나님과 동일시.
 -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한 대상을 야곱은 '하나님'으로, 호세아는 '천사'로 이해.
 - * 기독교 전통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성육신하신 것으로 이해.
 - 출 23:20-23에서 천사는 죄를 용서할 권능, 신성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것을 암시.
 - 신약에서는 "여호와와 그 천사(the angel of the Lord)"가 언급되지 않음.
- 16:8-10/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말한 두 가지 초점은 아브람의 집에서 하갈이 누린 지위와 하갈의 미래.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갈은 계속해서 사라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함.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 * 무수한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하갈의 지위가 격상되고 하갈은 장래를 보장 받음.
 - * 이 약속의 언어는 아브람과 아브람을 승계할 합법적 계보에 대한 약속과 같음.
 '아들을 낳으리니...' 하갈은 처음으로 수태 고지를 받은 여인이자, 여성으로써 처음 약속을 받음.
 * 하갈과 그 아들은 아브람의 집안에서 복종하는 지위로 남아 언젠가는 족장의 축복을 받는 이익을 누림.
- 16:11-12/ '이스마엘이라 하라': *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 - '그녀의 고통을 들으신 주님을 기념.
 * 하갈이 경험한 압제는 히브리인을 향하게 됨.
 이들은 애굽인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심.
 '들나귀': 외부인의 삶의 양태, 이스마엘의 사막 거주를 암시.
 '치겠고, 대항하여': 하갈의 아이와 아이의 후손은 타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낼 것.
 '그의 모든 형제와': 이스마엘의 폭력의 목표는 '모든 형제들'로서 가족의 충실한 유대를 파괴하는 것(25:18).
- 16:13-14/ '살피시는':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을 들은 데 이어 보신다는 사실도 깨달음.
 '브엘라해로이': * '나를 보는 하나님(엘로이)의 샘'.
 - * '라해(살아 있는 자)'라는 명칭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하갈의 놀라움의 표현.
 - * 하갈은 자신이 비천한 사람임에도 자신을 가엾게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

3) 이스마엘의 출생(16:15-16)

-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 16:15-16/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낳은, 아브람에게 낳았을 때':
 - * 가정 내에서 이스마엘의 모호한 지위. 상속을 주장할 권리는 없지만 장자로서의 지위는 유망할 것.
- '팔십육 세였더라': * 시간이 갈수록 노쇠해 감에 따라 늙은 부부에게 아들이 출생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음.
 - 아이 이삭의 기적은 커져 감.

(8) 할례, 언약의 징표(17:1-17)

중요내용

1. 이스마엘이 태어난지 13년 후, 주님은 아브람에게 후손과 땅의 약속을 반복, 할례 언약의 징표와 봉인을 가르치심.
2. 아브람은 대체자 엘리에셀을 제안했고 사라는 대리모 하갈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더 나은 계획을 실현.
3. 17절의 언약은 아브람에게 선포된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언약의 영속성이 새로이 강조, 할례의 “징표”가 첨가.
4.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는 것으로 아브람에게 새로운 보증을 주심.
 - 아브라함과 사라는 새로운 국가의 시조라는 지위를 얻게 될 것.
5. 선택 받지 못한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큰 나라의 조상이 될 것.
 -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더라도 이 언약을 상속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만 영속적인 복은 아님.

1) 엘 샷다이가 아브람에게 나타나다(17:1-3b)

-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 17:1-3a/ ‘아브람이 구십 구 세 때에’: 아브람이 이 땅에 머문지 44년째, 이스마엘이 13세 되는 해.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샷다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계시하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두 가지 의무 사항을 제시하심으로 언약 징표를 받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명함.
 * 12:1-3의 순종에 대한 부르심과 맥을 같이 함. ‘가라(행하여)’, ‘복이 될지라’. 노아를 연상케 함(6:9).
 * 구체적으로 이 명령은 할례를 가리킴.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신현에 대한 아브람의 깊은 경외와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 애원을 수반.

2)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17:3b-8)

- 3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17:4-5/ ‘나는 나와 언약을 세워’(개역개정에는 없는 표현): 언약의 근원과 성격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명시.
언약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언약이 중심임을 4, 5절의 반복(인크루지오)으로 강조.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미래의 약속을 이미 실현된 것처럼 표현.
- 17:6/ **언약의 두 번째 특징:**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수한 후손을 주실 것.
 ‘심히 번성하게’: * ‘극도로 비옥한’이라는 뜻. 창조 법칙(1:22)과 노아 언약(8:17)을 연상하게 함.
 * 축복의 성취는 애굽에서의 인구 폭증. 그러나 그것이 압제와 추방을 촉발.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가 출현하게 될 것을 예고.
 * 창세기에는 이스마엘 종족 통치자와 에돔의 왕들의 목록으로 제시.
 * 야곱 가문에 미래의 통치를 암시하는 것은 유다의 ‘홀’의 축복(49:10).
- 17:7/ **언약의 세 번째 특징:** 이 언약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것.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 집단으로 언약이 전개.
 * 시내 언약을 암시(신 26:17).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노아 언약이 보편적인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 언약은 특정 분파로 제한(이삭-야곱).

‘영원한’: * 기독교 독자에게 할례의 효력과 가치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이 됨.

- 할례는 언약의 ‘징표’일 뿐 언약의 본질이 아님. 언약은 궁극적으로 양 당사자의 헌신에 의존.
- 이 언약에는 영적인 차원이 내재함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할례를 받았으나 추방 당한 자로 입증.
- ‘영적인 할례’는 주님의 은총을 누릴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시험(신 10:16, 30:6; 렘 4:4 골 2:11).
- 언약의 영원한 본질은 믿는 자의 영적인 중생.

- 17:8/ **언약의 네 번째 특징**: 후손과 땅이라는 핵심 요소를 결합.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할 것을 예견.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되리라’:

- * 상속의 약속은 이스마엘과 에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음.
- * 신약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소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롬 9:4-13; 히 11:8; 벧전 1:4).
- * 이 언약은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와 후속 왕조의 인도 아래 성취.
- * 상속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출 32:13; 신 4:21 등), 선한 땅의 거주자(레 25:23)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
- * 교회는 이 땅의 수여를 확장하여 온 땅을 포함하게 했고(롬 4:3, 마 5:5), 이를 영원한 생명의 상속으로 해석.

3) 할례의 언약(17:9-14)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 17:9-11/ ‘그런즉 너는… 지키고’: 언약 의무에 대한 준수를 요구.

‘네 후손도 지키라’: 미래 세대로 언약 의무가 전환. 아울러 이 징표가 번식과 연관성이 있음을 반영.

‘포피를 베어라’: 할례는 신체에 영구적인 표지를 남기는 의식.

- 17:12-14/ ‘모든 남자는…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 갓 출산한 산모의 경우 7일을 부정한 기간으로 해석. 속죄일, 주님에 대한 헌신과 관련.

‘모든 남자는…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스마엘과 노예, 이방인의 모든 아들들까지 다 포함.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존하는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추방. 이 관습을 수행하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양해는 전혀 없음.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관습의 위반은 곧 주님을 거부하는 것. 구약에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위선을 묘사.

4)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17:15-18)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 17:15-16/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

‘아들, 여러 민족, 민족의 여러 왕’: * 무수한 후손과 나라들과 왕들의 약속으로 사라에게 복을 주심.

* 창세기에서 일반적으로 남성 시조에게 주시는 복.

- 17:17-18/ ‘아브라함이 엎드려…’: 다양한 감정- 경외하는 경배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웃고 설득하고 간곡히 애원.

‘웃으매’: 이삭의 수태고지에서 사라도 웃음으로 반응 - ‘이삭’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

‘백 세 된 사람이… 사라는 구십 세니’: 자신들의 노쇠한 상태가 사라의 임신을 막는다고 (속으로) 설득.

‘이스마엘이나…’: * 이스마엘을 받아달라고 애원함으로 하나님께 역제안.

* 하나님도 아브람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심(20절).